

제주특별법 개정 ‘투 트랙’ 방식 진행

의회, 내년 선거 앞두고 시급과제 의원 입법 추진
자치재정확대 분야 등은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 “상반기까지 TF 진행 전부 개정안 초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투 트랙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및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제를 보완·확정한 후 5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정 삭제, 행정시장 주민직선제,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 3% 명문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담았다.

하지만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과 정부부처 설득 논리개발 미흡 등을 감안해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행정시장 임명방식 변경,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연동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만을 추려낸 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재정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계정 3% 명문화 등 나머지 핵심 과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진행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은 8일 오후 3

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를 연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과제를 도출했는데 너무 많고 의원 입법으로 하기에는 법이 무겁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거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빨리 연동

해서 개정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4월 임시회 이전에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하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도민 제안 코너를 통해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수국 배경으로 봄날의 추억을... 7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태공원 수국축제 현장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이 활짝 피어난 수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제주지역 적합한 스마트팜 구축 착수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값싸고 간단한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로 제주지역에 적합한 스마트팜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ICT(정보통신기술)를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폰·PC로 작물 생육조건에 부합하는 온·습도, 냉난

방 등을 자동 원격 조절하는 농장이다. 최적 생육관리로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고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편리한 원격제어로 인해 최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이뤄진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지역은 초기 설치비가 비싸고 업체의 A/S가 원활하지 않아 스마트팜의 구축이 쉽지 않

다는 전망이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오픈소스 기반의 단순한 명령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을 내장한 ‘시설과수 저비용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폰으로 온도, 강우 감지 등 센서 신호에 반응해 천·축창 개폐, 환풍기, 관수밸브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농가에서 실증 시험 후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신중 검토” 정 총리, 7일 코로나19 회의서 방역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600명대로 재진입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불길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번지고 있다”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하루하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4.1.~4.7.) 동안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7명으로 이미 거

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적용 기준을 웃돌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며, 제주는 1.5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코로나19 무료진단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상유무에 따라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나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서귀포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22일 개소

서귀포의료원에 설치 6일부터 2차 접종 진행

서귀포 지역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서귀포의료원에 설치돼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의료원에 예방접종센터를 꾸려 오는 22일 개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방역당국은 서귀포의료원에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한 뒤 적격성을 시험하고 있다. 또 오는 14일 서귀포 예방접종센터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도동, 이도1동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은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제주시 접종센터에서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2222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백신이 추가 도입돼 8일부터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75세 이상 노인도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또 이날부터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교사를 대상으로도 접종이 시작된다. 이후 교정시설 종사자, 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대상 순으로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2차 접종도 시작됐다. 지난 6일부터 3곳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이 2차 접종을 받아 현재 656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예방 접종 이상 반응으로 205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사망 사례는 없었다.

한편 도내 75세 이상 인구 수는 4만 6939명으로 이 중 76.7%인 3만 5987명이 접종하겠다고 동의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코로나19 확진 642(3) / 백신 접종 1차 13,704(794), 2차 1,266(610)
7일 19시 기준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함께의 힘으로 성장한 지난 1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놀라운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낸 2020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농업인, 국민이 있습니다
2021년도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혁신으로 더 새롭고 희망찬 농협이 되겠습니다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디지털 혁신

유통 대변화

코로나19 극복 지원

2020년 농협이 한 일

디지털 혁신

디지털 조직으로 변화 및 스마트농업 보급 확산 지원

-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 ▶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 ▶ 범농협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구축
- ▶ 농협형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추진

유통 대변화

유통혁신 방안 마련 및 최첨단 유통 플랫폼 구축

- ▶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
- ▶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오픈
- ▶ 디지털물류처리센터(DFC) 구축
- ▶ e하마로마트 당일 배송체계 마련

코로나19 극복 지원

코로나19로 지친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든든한 지원

- ▶ 공적마스크 공급창구 역할 수행
- ▶ 학생 가정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 ▶ 영농인력 공급 및 화훼농가 지원
- ▶ 코로나19 피해 농·소상공인 금융지원

제주시농협 한경애 월농협 조합장 고봉주 조합장 조한장 조합장 김진문 조합장 함덕농협 조합장 조한장 조합장 현승종 조합장 한림농협 조합장 차성준 조합장 윤민 조합장 조한장 조합장 고권진 조합장

조한장 조합장 김군진 조합장 김병수 조합장 조한장 조합장 고영찬 조합장 김녕주 조합장 조한장 조합장 오충규 조합장 구좌농협 조합장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제주시지역농축협운영협의회 협의회장 김군진 **NH 농협제주지부** 지부장 고석찬